

광주 화정동 이마트 부지 특급호텔 건립 본격 시동

(주)신세계·광주시 투자협약
6000억 들여 2019년 완공
지하 7·지상 20층, 250실 규모
복합쇼핑몰·면세점 등 추진

(주)신세계가 광주시와 투자협약(MOU)을 맺고 호남권 최대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신세계는 11일 오전 광주시 청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진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는 광주시 서구 화정

동 이마트 부지에 6000여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30만㎡, 지하 7층 지상 20층,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문화·레저·쇼핑시설(이마트)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신세계측은 인근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총 27층 중 10개층 3000㎡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7월) 이전 완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특히 지난달 호남선KTX 개통 후 급증하는 중국·일본 관광객 등을 위한 면세점 영업공간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면세점이 단 한곳도 없다. 신세계와 광주시는 이번 복합시설 개발 사업으로 수년간 침체에 빠진 광주지역 경

제 회복에 기록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만 22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수도권으로의 경제 역류현상을 극복하고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쇼핑이 결합한 랜드마크 복합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광주를 위해 투자 의지를 표명하고 정성을 모아주시는 신세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텔건립지 주변이 교통 혼잡지역이고, 특급호텔과 매머드급 대형 쇼핑몰을 접목한 복합쇼핑몰로 건립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일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네팔 광주 구호단 랜턴 켜고 응급수술



대지진 피해 수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팔에 파견된 '광주시 2차 구호단 캠프' 의료진이 지난 9일 밤 팔릿푸르 마니킵마을에서 정전상태에도 불구하고 손전등과 119구조대원의 헤드 랜턴을 켜 채 부상자의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

마을주민 람기미리(48)씨는 이날 해 질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지진

여파로 산사태가 발생한 도로에서 낙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다.

(사)희망나무 긴급 구호팀장을 맡고 있는 박석인 미르치과 원장과 전성현 아이퍼스트 청소년과 병원장,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정홍성 전공의 등 광주 2차 구호단 의료진은 어둠 속에서 환자의 상처를 소독한 뒤 3시간에 걸쳐 6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마쳐 고비를 넘겼다.

함께 파견된 전남대병원 간호사들도 어둠 속에서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고, 수액을 주사하는 등 완벽한 호흡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관련기사 2면>
/릴릿푸르 마니킵(네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찾은 정청래...주승용 "복귀 않겠다"

만남은 불발... 전화 통화 만
주 "사과 수용·사퇴철회는 별개"
전남도의원들 혁신방안 촉구
지역 국회의원 18일 회동 주목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로 인한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의 사퇴 사태 등 지도부 내홍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4월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매개로 하는 당내 내분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의 지도부 내홍

사태와 관련,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패배한 것도 모자라 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그 모습이 친노-비노, 친노 패권주의라는 분열의 프레임"이라며 "문재인은 친노 주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날 주승용 최고위원 등 비노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단시일 내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막말 파동의 당사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여수로 내려갔지만 주승용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전화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사과 표명과 사퇴 철회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당직 복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내 비노 진영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한길 전 대표는 "문 대표는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불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경태 의원도 "당내 화합과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일부 친노 패권자들은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2명은 11일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당 통합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체적 혁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 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당내의 심각한 내분 사태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회동을 가질 예정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때 계엄군 발포명령 있었다 ▶7면
강정호 ML '강강쇼' 흥런에 결승타 ▶20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가프 기능성 티셔츠>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해라, 아리따움, 르가프, 55CHU